

난가의 안정화를 기대하며...



오 정 길

- 한국양계농협 이사
- 전 대구경북 지회장

적으로 결정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계란 가격을 발표할 때에는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영주, 목포의 조절(정보)위원이 그 지역의 시장 상황과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그 지역에서 계란 가격을 발표합니다. 이때 그 지역의 난가정보위원들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 상인과 농가, 축협, 할인 매장의 행사 등을 고려하여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을 발표하지만 대부분은 재래상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인들과 계란 가격을 놓고 타협을 합니다.

물건을 사는 자와 파는 자와의 협상에서는 늘 물건을 사는 쪽이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농가측 난가정보위원은 늘 힘이 부치게 됩니다. 물론 계란이 부족할 때에는 사정이 달라지지만, 부족할 때보다는 남을 때가 많고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저온 시설이 있지만 소비자가 냉장 계란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공 저장 시설을 확충하여 여름과 비수요기의 계란을 처리하여야 할 것

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지난 6년간 대한양계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을 맡아서 혹시 협회나 양계 농가에 누가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잘못된 일이나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큰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지회장의 임기 중에 대구경북의 육계시세, 계란시세를 발표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만족할 때보다는 아쉬웠던 적이 많았으며, 문제점도 있었기에 이제까지의 난가 조절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바람을 적어 볼까 합니다.

계란 가격 발표는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량에서 결정되지만 도매시장(공판장)의 기능이 없는 관계로 인위

입니다. 상인들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농가 대표들은 상인들보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과거 계란이 늘 부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한창이던 1980년에는 계란의 발표 가격을 농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상인들은 영세하였으며, 정보도 농가보다 부족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시장 상황이나 주변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경제력을 갖춘 상인들이 많고 통신과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도 농가보다 뛰어난 실정입니다. 우리 양계 농가들은 아직도 계란이 부족했던 시절만 생각하며 상인들을 상대합니다. 이제 농가들이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난가 정보위원의 입지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계란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 상황을 보고 가격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계란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시기가 적절해야 하며 그 권위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계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생선이나 채소, 과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먹거리들과의 경쟁과 언론 매체를 통한 건강과 영양에 대한 정보, 질병 발생에 대한 잘못된 보도 등을 파악하여 가격 협상을 해야 합니다. 난가정보위원들은 농가의 대표로써 상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서로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모두 계란값을 내러가는 것을 좋아하고 올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상대가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상인이라도 유통의 대표라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욕박질러서는 곤란합니다. 어쩌면 상인이 우리를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계란의 가격 결정을 유통 시장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란계 농장은 계란 값을 많이 받기를 원하므로 계란 값이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고 계란값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소비가 둔화되고 생산이 과잉되는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고 산란 농장들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산란계 농장들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농장보다 더 높은 시세를 받고 싶으면서도 조금만 계란이 밀리면 다른 농가보다 싸게 계란을 팔려고 조금씩 서두릅니다. 이것은 가격을 더 많이 더 빨리 내리는 원인이 되고 덤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난가정보위원들은 산란 농가에 계란 가격을 많이 받아주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확히 공평하게 신속히 유통 시키는 것이 덤핑 그리고 과도한 D/C를 예방하고 계란의 유통 질서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난가정보위원들의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보다는 불평과 욕을 더 많이 듣습니다. 계란가격을 발표하고 계란이 잘 유통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앞으로도 계란 가격 발표에 대하여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계란 가격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다른 지역의 난가정보위원이나 산란농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면 이해 바랍니다. 저는 어차피 양계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므로 계속해서 난가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잉생산과 소비위축으로 계란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 같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FTA 협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계란의 생산 원가를 낮추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지회를 맡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다른 자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계**